

전기공업계, 최저가낙찰제 부활 강력 반발

한국전기공사협회, 국회 방문... 중소 전기공사기업들 의견 전달 등 전방위적 대응 나서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이 최저가낙찰제를 부활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가낙찰제는 적자 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최저가로 인한 공사 시공품질 저하로 건설근로자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됐다.

관련업계는 지난해 폐지된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으로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가낙찰제가 다시 시행될 경우 부실시공을 야기하고 중소기업의 경

영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100억원 이상 대상공사를 PQ심사를 통한 최저가낙찰제로의 확대 시행은 대부분 중소건설업체에게도 오르지 못한 대표적 불공정경쟁 구도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국회를 직접 방문,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류재선 회장, 이형주 전기신문사 사장, 김은식 전북도회장이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조배숙, 송기석, 김관영, 박준영 의원 등을 잇달아 면담

하고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류재선 회장과 이형주 전기신문사 사장은 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시공품질 안정화와 전문시공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도 재도입을 막고 법으로 규정한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중소 전문시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최저가낙찰제가 과당경쟁과 덩핑수주라는 많은 폐해를 야기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저가 낙찰은 시공품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세 하도급사에 연쇄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답합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지 1년만에 최저가낙찰제를 부활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덩핑수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부실공사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하자보수비용 증가, 원도급사간 분쟁 발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폐해를 야기시킨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 전문시공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창립 56주년 기념식서 다수의 상 수상

전북농협은 10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총화상, 공적상, 최우수직원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먼저 총화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농·축협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인화선단결, 사회공헌, 업무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사무소에 시상하는 농협내 최고의 권위 있는 상

으로 남부안농협과 남원축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농협중앙회 대외인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인실치즈농협 설동섭 조합장이 공적상을 수상했으며, 전국농·축협중에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출된 부안농협 이호빈 과장대리는 수직원상 수상과 함께 특별성인의 영예를 얻었다. /인재용 기자

여름 사과시장 평정할 국산 품종 '썸머킹' 출하

대형마트로 135톤 유통... 과즙 풍부하고 맛도 좋아 소비자들에 호평 받아

올 여름 사과시장을 평정할 국산 품종 '썸머킹'이 본격 출하된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여름사과 '썸머킹' 약 135톤이 유통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여름 사과로 알려진 '쓰가루'를 대체해 올 여름 사과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밝혔다.

그동안 여름 사과는 8월 하순이 정상 숙기인 '쓰가루'가 7월 상순부터 덜 익은 상태로 출하돼 '아오리'란 이름으로 유통됐다.

아오리는 50일 이상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됨에 따라 껍질이 두껍고 질기며 짙은맛이 강해 햇사과

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높였다.

이로 인해 정작 맛있는 사과가 출하됐을 때에도 사과 구매를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농촌진흥청에서 2010년 개발한 맛좋은 여름 사과 '썸머킹'은 '쓰가루'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다.

'썸머킹'은 7월 중순부터 출하가 가능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조식감이 우수하다. 당산비(당도 11~14브릭스, 산도 0.40~0.70%)가 높아서 새콤한 맛도 함께 즐길 수 있다.

2013년 봄부터 농가에 묘목을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경북 군위에서 15톤 정도를 대형마트에 출하했는데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 출하되는 지역은 경남 거창, 경북 군위·김천·영양·영주, 충북 보은, 경기 파주, 강원 철원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물량도 약 135톤에 달한다.

'썸머킹'은 '쓰가루'에 비해 180%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져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소비자는 맛있는 여름 사과를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썸머킹' 품종의 우수성을 알려 보급을 확대하고자 생산농가, 종묘업체,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연구회를 14일 경북 군위의 사과연구소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썸머킹' 품종 특성 및 보급 현황, 출하 장점, 시장 반응 등을 소개하고 나무에 달린 과실 상태 등을 직접 보고 시식도 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권순일 농업연구관은 "썸머킹의 품질과 출하 시기가 균일하도록 농가기술 지원을 지속"으로 실시해 유통시장과 소비자들이 만족해 하며 먼저 찾는 품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부안 봉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공급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안 라온 프라이빗과 부안 봉덕 오투그란데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이번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부안 라온 프라이빗은 75㎡타입 9세대, 84㎡타입 24세대, 84㎡B타입 14세대, 84㎡C타입 4세대 등 총51세대이고, 부안 봉덕 오투그란데의 경우 84㎡타입 18세대로 전부 69세대에 이른다. 신청자격은 과거 근무경력 포함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공동체 사업 이해 증진 신규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마을기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실시하는 마을기업 아카데미는 마을기업과 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14개 시·군과 경진원에서 14일까지 모집한다.

전북도-경진원, 마을기업 아카데미 개최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매년 행사장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지정된 6개 마을기업을 포함해 현재 전북도에는 106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내 마을기업 사

례를 통해 마을기업 설립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정읍, 군산, 전주, 김제 등 마을기업으로 찾아가는 생동감 있는 교육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13, 2014년도 행사부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도내 마을기업

대표의 성장과정을 듣고 멘토링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어서 공동체사업을 구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수도 있다.

도내 마을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식품관련 마을기업은 물론 체험형, 도·시형, 유통형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을 소개함으로써 마을기업에 대해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도 마련한다. /인재용 기자

전북우정청, 전일중서 자기사랑고백 편지쓰기 행사

전북우정청은 10일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쓰기' 운동에 6월 우수 참여학교로 선정된 전일중학교를 찾아 1학년 학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교육 및 자기사랑고백 편지쓰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깨워주기 위해 전문가사를 초빙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했고,

3D 프린터를 통해 호투라기와 소형 무지개우체통을 직접 출력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백광흠 교장은 "오늘 우체국과 함께 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자기사랑고백 편지쓰기가 학생들이 장래의 꿈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짐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www.i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어울진 전주농협 Good 농산물

복숭아

호박

미나리

장미

배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 오태식
상임이사 (경제) 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중앙회